범어사성보박물관, 특별전 '삼국유사: 기록하다' 개막

3.1절 104주년 맞아 3월 1일 개막식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해
집필 동기 '호국' 강조도 특별전 취지
진본 외 인출본, 영인본도 함께 선보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범어사(주지 보운) 성보박물관이 3월 1일 성보박물관에서 특별전 '삼국유사: 기록하다' 개막식을 개최했다.

특별전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고, 〈삼국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 태평양 지역목록(이하 유네스코 아 · 태 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해 마련됐다. 아울러 3.1절 104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이번 특별전은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하게 된 동기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마음'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기획했다. 또한 범어사성보박물관은 특별전을 통해 〈삼국유사〉에 담긴 역사와 민족정신을 강조하고 의상대사, 일연 스님, 원효 스님이 남긴 발자취와 호국불교의 정신을 다시 한 번 조명한다.

개막식에는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 성보박물관 관장 환응 스님을 비롯해 범어사 국장 스님들과 양맹준 前 부산시 문화재위원장, 범어사 신행 단체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특히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한 인각사(麟角寺) 주지 호암 스님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개막식은 축하 공연으로 시작을 알렸으며 개회에 이어 〈삼국유사〉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 경과를 보고했다. 이어 〈삼국유사〉 유네스코 인증서 수여식과 공로패 수여식이 진행됐다. 공로패는 최영호 동아대 교수, 김귀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본부장, 이정은 국립해양박물관 선임학예사, 이현주 범어사 성보박물관 부관장이 받았다.

주지 보운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삼국유사〉는 한국인의 정신문화를 관통하는 역사서이자 세계가 보호하고 지켜야 할 귀중한 유산인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태평양 지역목록으로 등재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이번 특별전은 일연 스님께서 남긴 기록들 사이에 생생한 인물들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전해야 할 역사를 망라하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이 3월 1일 성보박물관에서 특별전시 '삼국유사: 기록하다' 개막식을 개최했다.

관장 환응 스님은 "호국불교라는 가치를 조명해보고자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고 뜻깊은 3.1절을 맞아 오늘 개막을 하게 되었다"며 "전시를 통해 〈삼국유사〉의 가치와 고승대덕 스님들의 호국정신을 만나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삼국유사〉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목록 등재사업은 2018년 9월부터 군위군에서 등재를 계획하고 2019년 군위군과 삼국유사 소장 기관인 연세대학교 박물관, 범어사 성보박물관, 서울대학교 규장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등재 추진을 위한 연구 진행을 한국국학진흥원에 위탁했으며 전문가 자문회의와 전국학술대회 등 등재를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2022년 2월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했고 4월 국내후보로 선정돼 2022년 11월 26일 최종 등재됐다.

특별전은 1부 기록을 남기다, 2부 나라를 지키다, 3부 역사를 전하다로 구성됐다.

△1부 '기록을 남기다'에서는 〈삼국유사〉에 담긴 기록에 대해 소개한다. 〈삼국유사〉에는 다양한 건국설화, 불교 전래 과정, 사찰 창건과 관련된 설화 및 고대 시가(詩歌)라고 할 수 있는 향가도 수록되어 있다. 특히 권4 '의해(意解)' 편에 수록된 고승의 전기를 소개하고 의상대사와 원효대사 등 그들의 진영을 함께 전시한다. 이 외에도 권3 '탑상(塔像)' 편과 권5 '감통(感通)' 편에 수록된 스님과 일반 사람들이 마주한 불 · 보살들과의 다양한 일화가 기록된 부분도 함께 소개된다.

△2부 '나라를 지키다'에서는 〈삼국유사〉를 지키고, 기록으로써 나라를 지킨 이야기에 대해 소개한다.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 스님과 집필 장소인 인각사(麟角寺)가 기록된 부분을 '삼국유사 범어사본(本)'을 통해 소개한다.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기록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호국정신을 기저로 삼은 관련 전적들을 전시한다. 또한 우리의 이야기, 〈삼국유사〉를 지키기 위한 후손들의 노력으로 전해진 인출본, 영인본도 함께 선보인다.

△3부 '역사를 전하다'에서는 〈삼국유사〉를 전하고, 나라를 지켜 역사를 전한 고승들에 대해 소개한다. 이번 전시에는 임진왜란 시기에 승장(僧將)으로 활약하며 부산진성(釜山鎭城)을 축조하는 등 부산과 인연이 있는 사명대사, 전쟁 이후의 범어사를 재건한 묘전대사의 진영 등을 마주하며 그들이 전하려 했던 뜻을 기린다. 마지막으로 삼국유사의 기록을 후대에 전하고자 했던 오성월 스님과 관련하여 삼국유사 5권의 맨 마지막 부분에 스님께서 〈삼국유사〉를 범어사에 기증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부분을 소개하고, 당시에 제작된 범어사 전경도(全景圖)와 선사상(禪思想)을 진작시키기 위해 간행된 선문촬요(禪門撮要)도 선보인다.

전시는 3 · 1절을 맞아 의병장 고광순(1848~1907)이 사용한 태극기, '불원복(不遠復)' 태극기로 마무리 된다. 특별전 '삼국유사: 기록하다'는 6개월간 이어지며 삼국유사 진본은 3개월 동안 제한 전시된다.

삼광사, 금강불교대학 수료식 및 입학식

수료생 86명, 입학생 179명
삼광한글학교 졸 · 입학식도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영제)가 2월 25일 지관전에서 '금강불교대학 34회 수료식 및 36회 입학식'을 봉행했다.

이번 해 수료생은 불교학과 중급과정 35명, 교법사 과정 51명으로 총 86명이며, 입학생은 교법사 과정 42명, 중급과정 65명, 초급과정 72명으로 총 179명이다.

이날 행사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과 천태종 원로위원 춘광 스님, 학장 영제 스님을 비롯해 김차수 총동문회장, 윤종갑 지도 교수 등이 동참했으며, 행사는 △개회선언 △삼귀의 및 반야심경 △법어봉독 △학사보고 △수료증 및 교법사증 수여 △상장 및 상품전달 △동문상 수여 △입학 허가 및 신입생 선서 △훈사 및 치사 △ 축사 △ 발전기금 기증 △ 축가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졸업을 맞는 불교학과 및 교법사과 학생들이 금강불교대학의 발전을 기원하며 발전기금 총 600만 원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상월원각대조사님께서 금불대를 설립하신 것은 교육 불사를 통해 종도들의 소양을 기르고 지식과 지혜를 고양하여, 어디서나 청정하고 밝은 자아로 자리이타와 동체대비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다며 "배움의 공덕은 개인의 삶을 밝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우주 법계를 행복하게 하는 근원"이라고 강조했다.

학장 영제 스님은 "부처님의 불법을 공부하고 마음을 닦는 수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삼보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우리 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건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금불대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악을 버리고 선을 실천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과정이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강불교대학은 1973년 8월 상월원각 대조사가 불교중흥과 인재양성을 위한 원력의 실천으로 시작됐다. 1983년 3월 4일 서울 성룡사가 천태학과 38명과 불교학과 130명을 맞아 제1회 입학식을 열고 개교했다. 삼광사는 이후 1987년 12월 금강불교대학 부산분교를 설립하고 1988년 3월 13일 불교학과 163명을 맞아 제1회 입학식을 봉행했다. 부산 금강불교대학은 1990년 제1회 수료식에서 불교학과 124명을 배출한 것을 시작으로 불교학과 중급과정 3629명, 교법사과 166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한편, 삼광사는 2월 25일 지관전에서 삼광한글학교 제30회 졸업식 및 제31회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초등학력 인정반 20명, 중등학력 인정반 22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했으며, 문예반 30명, 초등인증 20명, 중등인증 20명이 입학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도사, 가사불사 · 생전예수재 입재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가 2월 27일 경내 설법전에서 '불기 2567년 생전예수재 및 가사불사 입재식'을 봉행했다.

통도사는 49일 생전예수재 기간 동안 前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과 통도사 율주 덕문 스님이 법문하며 회향식은 4월 16일 오전 8시에 봉행한다.

생전예수재 기간 동안 통도사는 가사불사를 진행하고 불자들이 공양올린 가사는 4월 9일 이운식 후 승보공양 올린다.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는 "예수재는 사람이 병을 얻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과 같다"며 "업장을 미리 닦고 공덕을 지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참여한 모든 대중들이 소망하는 것을 이루고 물러남 없는 정진으로 잘 회향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인사말에서 "미리 공덕을 닦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생전예수재와 가사불사에 두루 동참하고 복된 불자들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통도사는 이날 불자체육인 인재양성을 위해 불자 체육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생은 경남체육고 단거리부 신의진 학생을 비롯한 5명이며 장학금은 각 100만 원씩 총 500만 원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2기 선재동자 문화전승단 출범

부산 어린이 불자 30여 명 새 출발



연등회와 팔관회의 보급과 계승을 위해 활동할 선재동자 문화전승단이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보운)는 2월 26일 범어사 휴휴정사에서 30여 명의 어린들로 구성된 '제2기 선재동자 문화전승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선재동자 문화전승단은 부산 지역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문화전승단으로 불교 대표 문화인 연등회와 팔관회의 가치와 보급, 계승을 위해 함께 활동한다.

출범식에는 지도법사 눌은 스님(범어사 포교국장), 범어사 어린이 법회 지도법사 벽해 스님(범어사 홍보과장), 김진희 선재동자 문화전승단 운영회장을 비롯한 운영요원과 학부모, 선재동자 문화전승단 어린이 등이 참석했다.

출범식에서는 선재동자 문화전승단 어린이를 대표해 박시연 학생이 발원문을 낭독했다. 이어 눌은 스님이 인사말을 통해 선재동자 문화전승단의 역할과 활동 등을 설명했으며, 운영요원 및 활동 소임자들의 소개도 이어졌다. 눌은 스님과 벽해 스님은 2기로 새롭게 시작하는 어린이들을 소개하며 환영의 의미로 이름표를 직접 목에 걸어주었으며 준비한 오색 염주를 선물했다.

선재동자 문화전승단 어린이들은 발원문을 통해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저희 선재동자 문화전승단이 앞장서서 부산불교 발전의 초석을 이루겠다"며 "오늘 가지는 이 마음 변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서원했다.

눌은 스님은 "오늘부터 여러분은 선재동자 문화전승단이다. 선재동자는 공부를 위해 53선지식을 찾아다닌 분"이라며 "앞으로 여러분도 선한 일에 성실했던 선재동자처럼 부산에 있는 어린이 불자를 대표해 불교문화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재동자 문화전승단은 출범식을 시작으로 전통등 만들기, 부산연등문화제 및 부산연등회 연등행렬 등에 동참하고 에코파크 성지 체험 프로그램과 유적지 탐방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3.1운동 104주년 기념

3.1운동 유공비 앞서 만세삼창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보운)가 3월 1일 범어사 3.1운동 유공비 앞에서 '3.1운동 104주년 기념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주지 보운 스님을 비롯해 국장 스님들과 신행단체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 3.1유공비는 범어사 명정학교와 지방학림 학생들을 비롯해 범어사 스님들이 주축이 되어 일으켰던 부산 만세운동을 기억하고자 건립되었다"며 "유공비에는 모든 이들의 이름과 숭고함을 기록할 수 없지만 추모법회를 통해 자주독립을 이루었던 과거 인연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흔적 없는 무명 고혼을 위로해 민족정신을 계승할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부산聯, 승려연수교육 개강

3월7일~4월4일 매주 화,
'선으로 본 대승기신론'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원허)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인증과정인 승려연수교육 '선으로 본 대승기신론'을 개강한다.

강사는 용학 스님(전, 범어사 승가대학 강주)이며, 교육기간은 3월 7일 부터 4월 4일 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부터 5시까지 총 5회로 진행된다. 장소는 부산 안국선원교육관(교대로16번길 27) 중강당이며 교육대상은 대한불교조계종 승려이다. 인증기관을 통해 교육을 이수한 스님들은 종단이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것과 동등한 자격으로 인증점수 30점이 부여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불교문인協, 치유의 숲길 나무심기



부산불교문인협회(회장 차정연)가 2월 25일 부산 승학산 등산로에서 '홍매화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치유의 숲길 조성을 위해 진행된 이번 홍매화 나무 심기는 부산 사상구 승학산 약수암 신도들과 함께 진행됐으며 부산불교문인협회 회원 등 40여 명이 동참했다. 홍매화 나무심기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이며, 회원들은 이번에 36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승학산 등산로는 반딧불이 있는 청정지역으로 산책하기 좋은 올레길과 연결되어 시민들의 쉼터로 알려져 있다. 또한 낙동강과 노을로 아름다운 경치를 선사해 시민들에게 치유를 안겨주는 장소이다.

차정연 회장은 "홍매화는 1월의 한파와 칼바람 속에서도 꽃순을 올리고 피어내어 우리들의 일상에 새로운 용기를 주는 꽃이다. 나도 예전 힘든 시절에 약수암 길목에서 한파 속에 피어있는 홍매화를 보며 용기를 얻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때부터 한 그루 한 그루 심은 홍매화가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날까지 홍매화를 심고 가꾸려 한다"며 "무엇보다 치유의 숲길 가꾸기에 함께한 부산불교문인협회 회원들의 열정에 감사의 마음을 올린다"며 인사를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창녕 관룡사, 제5기 불교대학 졸업식

2월 25일, 총 65명 졸업



경남 창녕 관룡사 불교대학(학장 정안)이 2월 25일 경내 대웅전에서 '제5기 불교대학 졸업식'을 봉행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총 65명이 졸업했다.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은 발전기금을 모아 전달했으며, 학장 정안 스님은 발전기금을 불우이웃돕기로 회향했다.

시상식에서는 조계종 포교원장상에 김미숙, 김애란, 창녕불교사암연합 회장상에 박숙희, 학장상은 전분남 외 12명이 선정됐으며, 개근상은 윤재순 외 8명이 수상했다.

학장 정안 스님은 "졸업이 끝이 아니며 새로운 시작과 넓은 세계로 나가는 출발점"이라며 "시작과 끝이 없는 무심의 세계에서 끊임없는 정진과 배움으로 살아가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불교대학 학사 일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포교에 앞장서고 자비 사상을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인도 아삼 내 대학에 한국어학교 개교

(사)세상을향기롭게, 1년 과정



사단법인 세상을향기롭게(이사장 정여)가 2월 20일 인도 아삼주 디부르가르대학교(Dibrugarh University, Vice-Chancellor, Prof. Jiten Hazarika)에 '한국어학교'를 열었다.

디부르가르대 한국어학교는 2학기 1년 과정으로 운영되며 6개월마다 신입생을 모집해 2년 후 총 60명이 수료할 예정이다.

세상을향기롭게 세종지부가 한국어학교 총괄운영과 지원을 담당하며 한글 교육을 위해 박희선 씨가 교수로, 비카스(Vikas) 씨가 강사로 활동한다. 세상을향기롭게 공익활동 협력파트너인 보라히 재단(Borahi Foundation, Director, Pratul Kumar Bora)은 한국어학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약속했다.

개교식에는 비스와지 페구(Biswajit Pegu) 디부르가르 지역 대표와 한국어학교 관계자를 비롯한 대학생 전원이 참석했다. (044)862-7104

하성미 부산주재기자